

## 심리적 폭력경험과 심리적 증상과의 관계에서 인지요인의 매개효과\*

이 옥 회

박 중 규†

대구대학교

본 연구는 남편에 의한 심리적 폭력경험이 심리적 증상이라 할 수 있는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역기능 태도와 부정적 및 긍정적 자동사고가 유의한 매개변수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대구, 부산, 울산, 경기도, 경남 등 지역사회에서 총 620명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심리적 폭력 및 역기능태도, 부정적 자동사고, 긍정적 자동사고, 우울, 심리적 안녕감을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연구자에 의해 가정된 매개모형은  $\chi^2$ 값이 2.18( $p=.14$ ), RMSEA .04, NFI .99, CFI .99로서 통계적 적합도는 양호하였다. 세부 경로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심리적 폭력경험은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역기능태도를 거쳐 부정적 자동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자동 사고는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리적 폭력경험이 역기능 신념 이후 긍정적 자동사고를 매개하면서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로는 남편의 심리적 폭력으로 인한 아내의 심리적 증상 발생과정에서 역기능 신념과 부정적 자동사고의 인지요인만이 유의한 매개변수였으며, 긍정적 자동사고의 완충효과는 지지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심리적 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개입에도 인지모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고, 이의 임상현장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논의하였다. 끝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심리적 폭력, 우울, 주관적 안녕감, 인지모형, 역기능신념, 부정적 자동사고

\* 이 논문은 이옥회(2010)의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토대로 보완 작성된 것임.

† 교신저자 : 박중규, E-mail : pjkspsy@daegu.ac.kr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정신적·심리적 측면보다는 신체적 측면이 많이 부각된다. 그러나 이는 한마디의 폭언도 신체적 가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력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심리적 폭력의 결과는 폭력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즉시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그 중요성과 심각성이 간과되어 왔을 수 있다. 또한 심리적 폭력을 신체적 폭력의 전조증상(Hyden, 1994; O’Leary, Malone & Tyree, 1994) 정도로 여기거나 항상 동반해서 발생하는(Herman, 1994) 폭력으로만 인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심리적 폭력이 반드시 신체적 폭력의 지표 또는 예측변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체적 폭력과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Chang, 1996; Marshall, 1999)들이 속속 제시되면서 심리적 폭력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심리적 폭력에 초점을 두거나 폭력유형간의 비교연구들은 피해 영향에 있어 심리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떤 경우에는 신체적 폭력보다 더욱 부정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정윤경, 2008; 정혜정, 2002; Coker, 2000; Dieneman, 2000; Follingstad, 1990; Kent & Waller, 1998; O’Leary, 1999; Street & Arias, 2001).

이와 같이 신체적 폭력이 배제된 심리적 폭력만으로도 여성의 삶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여성 피해자는 부정적 증상으로서 높은 수준의 우울과 낮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을 가질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때 심리적 폭력에 연관된 피해여성의 부정적 인지는 부정적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매개변수인 인지요인으로서 역기능 신념과 부정적 및 긍정적 자동사고를 상정하였고, 위에 열거된 변수로서 가설적 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인지요인이 매개변수로서 유의함을 밝히려 하였다. 본 연구는 심리적 폭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향후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 및 임상적 개입에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 심리적 폭력의 개념

가정 내에서 심리적 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규제할 수단조차 마땅치 않아 피해자를 더 큰 고통 속에 머물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특히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폭언을 듣거나 도구 등으로 위협을 당하게 되면, 심리적 충격은 우울증이나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결혼생활 중 실제로 여성들이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남성의 무지막지한 신체적 폭력 보다는 남편의 무시, 폭언, 협박으로 인한 심리적·정서적 피해일 수 있는 것이다.

심리적 폭력은 주로 강조되어지고 있는 표면적, 신체적 폭력이 배제된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언어적 폭력으로 정의된다. 심리적 폭력은 일반적 부부관계 또는 성격차이로 인한 언쟁이나 갈등과는 다르다. 심리적 폭력에는 공포와 위협, 강요, 위협적인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이와 같은 강요나 위협적인 행위는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군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설사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볼 때 여성을 가해자에게 종

속시키는 방향으로 폭력이 행해지게 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심리적 폭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구체화함으로써 개념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적 폭력의 범주를 도출해내고자 했다(Follingstad, Rutledge, Berg, Hause와 Pol, 1990, Sackett & Saunders, 1999). 즉, 심리적 폭력의 원인을 살펴보면 결혼생활 중 남편에 의한 심리적 폭력은 가해자가 권력을 갖고 배우자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것이다. 또한 심리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이 아닌 가능한 다른 방법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상대 배우자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권력과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협박, 알보기, 부인, 비난, 경제적 횡포, 강요, 위협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을 심리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Dalton & Schneider, 2001, Dunphy, 1999).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폭력 외의 심리적 폭력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 초래되고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발견으로부터 이는 주목받기 시작했다(Coker, 2000; O' Leary, 1999; Street & Arias, 2001).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가해 남편들의 신체적 폭력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폭력이 지속되거나 증가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할 수 없었다(김재엽, 2007; 여성가족부, 2007; Hamberger & Hactings, 1993; Hechert & Gondolf, 2005).

심지어 폭력 피해자들은 심리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보다 더 치명적임을 보고하는 경우도 많았다. 가령, Follingstad et al.(1990)은 신체적·심리적 학대의 경험이 있는 234명의 여성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거의 3/4에 해당하는 여성(72%)이 신체적 학대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심리적 폭력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Straus(1989)는 배우자로부터 많은 폭언을 당할수록 우울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Tolman과 Bhosley(1991)는 남성배우자의 구타행위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1년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남성에 의한 신체적 학대의 반복과는 상관없이 남성에 의한 심리적 폭력은 배우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폭력피해 아내들에게 형성되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시간적 추이에 따른 변화의 가능성이 적고, 대처능력의 감소와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위기감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심리적 상처들을 피해여성 홀로 감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 손상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박미은, 1998).

Tolman과 Stoops(199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구타를 당하거나 당하지 않은 여성표본에서 '심리적 학대'는 여성의 심리적 문제에 관한 예측요인인 동시에 관계의 불만족에 관한 지표일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Arias와 Pape(1999)에 의하면 심지어 신체적 학대를 통제한 이후에도 심리적 폭력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후군과 배우자를 영구적으로 떠나려는 의도부분에서 뚜렷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acobson, Gattman, Gortner, Berns와 Sachorrt(1999)는 가해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2년 동안의 연구에서, 심리적 폭력은 이혼을 예고하였지만 신체적 학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ackett와 Saunders(1999)는 구타당한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체적 학

대와는 상관없이 심리적 폭력은 우울 및 자존심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심리적 폭력과 관련된 인지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가정폭력 재발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치료효과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Hamberger와 Hastings(1993)는 치료 종료 후 6개월에서 24개월 안에 가정폭력 재발 비율이 24%에서 40%가 되며 법적처분을 받은 집단도 유사한 수준의 재발비율을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Lawson, Dawson, Kieffer, Perez & Kier, 2001). Saunders(1996)도 가정폭력은 치료 후에도 가정에서 폭력이 빈번히 반복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재발요인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접근모형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인지요인을 활용하는 치료적 접근법이 부분문제 해결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Nichols & Schwarts, 2001).

Beck(1988)은 인지모형을 통해 어떤 자극을 과거경험등과 관련시켜 해석함으로써 정서반응이나 행동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해석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Hankin와 Abramson, Miller, Haefell(2004)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정적 사건은 부정적 해석을 통해 우울과 낮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인지모형에서는 개인의 지각과 추론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된 잠재된 도식 또는 Kelly(1955)의 구성개념(personal constructs)과 같

은 인지구조에 의해 형성된다고 가정한다. 환경적 자극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과장되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한 자동적 사고는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은 환경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부정적인 의미 하에 체계적으로 왜곡을 하는 경향이 있다(Beck, Show & Emery, 1979).

인지모형에 의하면,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과민하여 사소한 자극도 재앙이나 위해가 임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항상 경계를 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이 만성화 되면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중성 자극도 위협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자기도 모르게 관련된 자동사고가 신속하게 떠오르게 된다(Beck, 1985).

부부관계 혹은 파트너관계에서 배우자나 파트너가 행동해야 하는 방식에 대한 믿음이 기준이 되는데, 오래 지속되고 매우 확신되고 있는 기준은 개인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주고, 세상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이 비현실적이거나 극단적 혹은 경직된 경우 또는 기준이 욕구에 충족되지 않았을 때 고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Baucom, Epstein, Soyers & Sher, 1989; Epstein & Baucom, 2002).

#### 심리적 폭력의 영향을 매개하는 인지과정 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지모형에서 주장하는 우울의 인지매개 가설에 의거하여 역기능 신념 및 부정적 및 긍정적 자동사고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 생활사건이 우울을 야기하는 과정

에서 스트레스 취약요인인 부정적 자동사고는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eck, 1967; Beck, Rush, Shaw & Emery, 1979). 다른 한편, 스트레스 대처 상황에서 긍정적 자동사고는 우울을 완화시키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심리적 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인지과정에서 인지왜곡과 인지결함이 생기게 된다. 이는 상황을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상황에 대한 사고와 정서를 편파적이게 한다. 그래서 심리적 폭력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황을 더욱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편향된 인지 때문에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게 만든다. 더욱이 절망과 체념 속에서 자존심이 결여되면서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 수 있다. 자신은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고 믿으며 자신의 행동과 무관하게 남편의 폭력은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 인지적 왜곡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Ingram과 Wisnicki(1988)는 우울 유발 상황에서 인지적 특성이 우울반응을 매개하는 과정에서 취약요인은 부정적 자동사고 뿐만 아니라 긍정적 자동사고의 결핍도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긍정적 자동사고와 부정적 자동사고가 유발사건과 우울반응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검증한 결과 긍정적인 사고의 빈도와 우울과는 역의 관계에 있음을 발견하였다(Ingram & Wisnicki, 1988). 또한 Lightsey(1994)는 긍정적 사고의 빈도가 부정적 사고와 우울사이에 매개로 인하여 긍정적 사고의 빈도수만으로도 우울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긍정적 사고의 결핍이 우울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Schwartz와 Garamoni(1989)는 심한 병리적 현상은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의 균형이 부적절할 때 발생한다고 보고 심리적 건강이란 이들 양 요인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인지적 특성이 우울을 매개한다는 인지적 관점을 종합해 볼 때, 우울에 빠지게 하는 취약요인이라 생각되는 부정적 사고뿐만 아니라 긍정적 사고의 결핍도 함께 우울에 빠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긍정적 인지의 부재가 우울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임이 주장되면서 긍정적 인지의 측정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MacLeod & Moore, 2000).

이제까지 부정적 인지요인과 심리장애와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는 많았지만, 부정적 자동사고와 긍정적 자동사고를 함께 고려하여 경로를 분석한 연구는 적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정적 자동사고와 긍정적 자동사고가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 변수역할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 연구방법

### 조사절차

2010년 7월 5일부터 2010년 8월 20일까지 대구, 부산, 울산, 경기도,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다. 총 9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어 730부가 수거되었다. 이중 불성실 응답과 결혼 유무의 불확실한 표기, 적절치 않은 설문지, 기재사항 누락한 설문지 110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20

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 참가한 여성은 총 620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은 30세미만 4.0%, 40세미만 43.5%, 50세미만 35%, 50세 이상 17.4%이었다.

결혼기간은 5년 미만 12.7%, 10년 미만 17.1%, 15년 미만 25.2%, 20년 미만 17.3% 20년 이상 27.7% 이었다. 학력은 중졸 5.2%, 고졸 30.0%, 전문대졸 23.5%, 대졸 31.3%, 대학원 이상 9.4%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한국판 심리적 폭력경험 척도**

본 연구에서의 심리적 폭력 경험 측정도구는 Tolman(1999)의 PMWI-S척도를 타당화한 한국판 PMWI-S(이옥희, 2010)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PM WI-S는 언어적 비난과 행동통제의 2개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요인 1은 ‘내 친구들을 시기하거나 의심했다’, ‘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비난했다’ 와 요인 2는 ‘내게 고향과 비명을 질렀다’, ‘내게 욕을 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옥희(2010)가 보고한 척도의 내적합치도 및 184명을 대상으로 2주 간격으로 실시한 재검사 신뢰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한국판 PMWI-S 내적합치도 및 신뢰도

	문항수	Cronbach's <i>a</i>	<i>r</i>
언어폭력	8	.90	.91
행동통제	6	.88	.90
전체	14	.94	.92

**역기능 태도 검사 도구**

역기능 태도 검사 도구는 DAS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Weissman & Beck, 1978)를 권석만(1994)이 개발한 한국판 역기능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역기능 태도 척도는 Weissman과 Beck(1978)의 DAS 40문항을 권석만(1994)이 요인분석을 통해 축소한 25문항으로 2개의 하위 요인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DAS는 0~6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하여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권석만(1994)의 연구에서는 DAS 신뢰도가 .86이었다. 본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역기능태도는 성취지향성 및 자율성, 사회적 의존성 및 애정요구에 대한 당위적 신념의 두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자동 사고척도**

부정적 자동 사고척도(Negative Automatic Thoughts Questionnaire; ATQ-N)는 개인이 일상 생활에서 부정적인 사고를 얼마나 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Hollon과 Kendall (1980)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시되는 부정적 사고 문항에 대해 지난 일주일 동안 그 같은 생각이 얼마나 떠올랐는지를 ‘전혀 아니다’ 부터 ‘항상 한다’ 까지 7점 척도로 응답하며, 0~6점 척도로 채점하였다. 원저자들이 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반분신뢰도는 .97, 내적 합치도 계수는 .96으로 보고되고 있다(Hollon & Kendall, 1980). 이 연구에서는 권석만과 윤호균(1994)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7로 나타났다.

### 긍정적 자동 사고 척도

긍정적 자동 사고 척도(Positive Auto-matic Thoughts Questionnaire; ATQ-P)는 개인의 긍정적 자기 관련 진술을 평가하기 위해 Ingram과 Wisnicki(1988)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긍정적 사고 문항에 대해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는지를 총 30 문항 7점 척도로 평정하게끔 하여 0~6점으로 채점하였다. 원 연구자들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 계수와 반분신뢰도는 각각 .94와 .95이었다 (Ingram & Wisnicki, 1988). 국내에서는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이주영과 김지혜(2002)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이들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4로 나타났다.

### 우울척도

우울척도는 Radloff(1977)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증후군의 역학연구를 위해 미국정신보건연구원에서 개발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승철, 김만권의 6명(1991)이 번안한 것을 우리나라에 맞게 만든 통합적 한국판 CES-D 척도를 사용하였다. 통합적 한국판 CES-D 척도는 4개의 요인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 문항에 대해 지난 1주 동안의 경험빈도를 4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긍정적인 문항은 역 환산 처리하여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배성윤(1998) 연구에서 CES-D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는 .87로 나타났다.

### 심리적 안녕감 척도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Ryff(1989)에 의해 개발되었다. 총 54문항으로서 6개 차원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김명소 등(2001)이 요인 분석하여 46문항을 선별하였다. 6개 차원은 자아수용, 환경지배력,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이며, 5점(1~5 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명소 등(2001)의 연구에서 각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67~.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는 .91이었다.

## 연구결과

### 연구 변수의 기술적 통계

모형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심리적 폭력은 평균 2.21점이었고, 역기능태도는 3.11, 부정적 자동사고 .81, 긍정적 자동사고 3.55, 우울 1.79, 안녕감 3.39로 나타났다.

표 2. 측정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n=620)

	평균	표준편차
심리적 폭력	2.21	1.24
역기능태도	3.11	1.16
긍정적 자동사고	3.55	1.41
부정적 자동사고	.81	.80
우울	1.79	.61
심리적 안녕감	3.39	.59

### 연구변수의 상관관계

본연구의 측정변수들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심리적 폭력은 역기능태도, 부정적 자동사

표 3. 측정변수 간의 상관 (n=620)

	1	2	3	4	5
1. 심리적 폭력	1				
2. 역기능 태도	.25**	1			
3. 긍정적자동사고	-.20**	-.36**	1		
4. 부정적자동사고	.42**	.53**	-.49**	1	
5. 우울	.42**	.51**	-.50**	.81**	1
6. 심리적 안녕감	-.28**	-.35**	.66**	-.58**	-.55**

\*\*  $p < .01$

고, 우울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심리적 폭력은 긍정적 자동사고와 심리적 안녕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측정 모형의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이 가지는 중요한 장점의 하나는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즉, 제시된 모형이 얼마나 적절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수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설정한 가설모형이 경험적 자료와 잘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수를 산출하여 그 값을 비교해 보는 과정을 거친다.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중에 RMSEA, NFI, CFI, CMIN/DF 그리고  $\chi^2$ 를 채택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chi^2$ 검증에서는 2.180 ( $p=.140$ )로 기준에 충족되었다. RMSEA는 .044로서 아주 좋은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NFI는 .999, CFI는 .999로 기준에 부합되었다. CMIN/DF도 2.180으로 기준에 부합되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추정치와 표준오차, T값은 표 5와 같다.

우울감에 유의하게 직접적 영향을 준 예측변수는 심리적 폭력( $\beta=.043, p=.001$ ), 역기능태도( $\beta=.045, p=.002$ ), 부정적 자동사고( $\beta=.515, p=.000$ )였으며, 긍정적 자동사고( $\beta=-.056, p=.000$ ) 역의 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간접적 영향에서는 .00으로 유의하지 못했다. 부정적 자동사고는 우울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녕감에 유의하게 직접적 영향을 준 예측변수는 긍정적 자동사고( $\beta=.209, p=.000$ )가 포함되었으나, 역시 간접적 영향에서 .00으로 유의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 부정적 자동사고( $\beta=-.244, p=.000$ ) 직접적 및 간접적 영향이 모두 유의했고, 심리적 폭력과 역기능적 태도는 간접적 영향만이 유의했다(표 6).

매개변수인 긍정적 자동사고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영향을 준 예측변수는 역기능 태도( $\beta=-.171, p=.001$ )가 영향을 주는 것으

표 4.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RMSEA	NFI	CFI	CMIN/DF	$\chi^2$	df
기준값	<.10	>.90	>.90	<5		
적합도	.044	.999	.999	2.180	2.180( $p=.140$ )	1

표 5. 가설적 모형의 AMOS 추정치와 표준오차, T값

경로	Estimate	S.E.	C.R.	p
심리적 폭력 → 역기능태도	.235	.036	6.458	.000
심리적 폭력 → 긍정적 자동사고	.014	.044	.331	.741
심리적 폭력 → 부정적 자동사고	.199	.021	9.437	.000
심리적 폭력 → 우울	.043	.012	3.465	.001
심리적 폭력 → 안녕감	-.020	.014	-1.392	.164
역기능 태도 → 긍정적 자동사고	-.171	.050	-3.431	.001
역기능 태도 → 부정적 자동사고	.309	.023	13.666	.000
역기능 태도 → 우울	.045	.014	3.169	.002
역기능 태도 → 안녕감	.009	.017	.547	.585
부정적 자동사고 → 긍정적 자동사고	-.734	.078	-9.467	.000
긍정적 자동사고 → 우울	-.056	.001	-4.933	.000
긍정적 자동사고 → 안녕감	.209	.013	15.738	.000
부정적 자동사고 → 우울	.515	.023	21.978	.000
부정적 자동사고 → 안녕감	-.244	.027	-8.882	.000

표 6. 가설모형의 직접, 간접, 전체효과 및 다중상관 자승치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R <sup>2</sup>
역기능태도				
심리적 폭력	.235	.000	.235	.063
부정적 자동사고				
심리적 폭력	.199	.073	.272	.370
역기능태도	.309	.000	.309	
긍정적 자동사고				
심리적 폭력	.014	-.240	-.225	.249
역기능태도	-.171	-.227	-.398	
부정적 자동사고	-.734	.000	-.734	
우울				
심리적 폭력	.043	.163	.206	.686
역기능태도	.045	.181	.226	
긍정적 자동사고	-.056	.000	-.056	
부정적 자동사고	.515	.041	.556	
안녕감				
심리적 폭력	-.020	-.111	-.131	.530
역기능태도	.009	-.159	-.149	
긍정적 자동사고	.209	.000	.209	
부정적 자동사고	-.244	-.154	-.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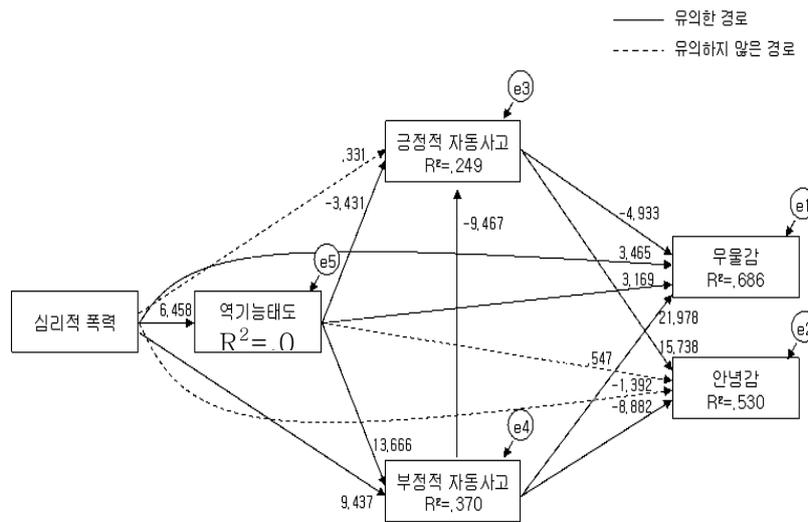


그림 1. 가설적 인지매개모형의 경로분석

로 나타났다. 부정적 자동차사고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예측변수는 심리적 폭력( $\beta = .199, p = .000$ ), 역기능태도( $\beta = .309, p = .000$ )로 역기능 태도가 부정적 자동차사고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역기능 태도에 직접적 영향을 준 예측변수는 심리적 폭력( $\beta = .235, p = .000$ )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및 다중상관 자승치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심리적 폭력은 역기능 태도를 6.3%, 부정적 자동차 사고는 37%, 긍정적 자동차 사고는 24.9%, 우울감은 68.6%, 안녕감은 53%를 설명하였다.

연구자가 설정한 인지요인을 매개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적절하였고, 각 경로의 계수도 비교적 기대되었던 결과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심리적 폭력경험과 인지요인인 역기능적 태도와 부정적 자동차사고는 심리적 증상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논의 및 제언

본 연구 결과 언어적 비난과 위협, 통제의 심리적 폭력만으로도 심리적 증상이 야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심리적 폭력에 잇따르는 역기능 태도 및 부정적 자동차사고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짐으로써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해 긍정적 자동차사고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지 못함이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적 폭력경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치료 및 개입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인지이론에 입각한 인지재구조화 작업 등은 피해자의 비현실적 기대를 수정하고, 관계에 대한 절망적인 믿음을 수정하며, 배우자의 폭력이 자신의 잘못은 아니며, 변화 가능하며, 그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도 극복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지각을 회복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폭력가정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 Jacobson과 Margolin(1979)은 몇 가지 단계의 원칙을 제안한 바 있다. 안전을 설정하고,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정의하고, 한 번에 한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서로 비난하는 것 대신에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부부갈등의 해결 과정에서는 양보나 타협의 인지적 변화가 동반되어야함을 제안하였다. 즉, 문제해결 방법은 기대나 현실에 대한 인지변화의 요소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내담자의 인지를 탐색하여 치료적 개입 방안을 강구할 때, 인지적 모형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입증하는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심리적 폭력상황에서 피해자가 갖는 부정적 인지가 부적응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일부나마 검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정적 인지는 가해자의 심리적 폭력을 유발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고려나 규명은 본 연구에서는 미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개입 방안도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심리적 폭력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부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부부갈등으로만 간주하여 피해자가 받는 부정적 영향이 무시되고 있다.

심리적 폭력에 대한 연구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신체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개인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녕감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심리적 폭력 또한 엄연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피해로 인한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심리적 폭력에 대처하

는 구체적 대안들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변수들을 측정된 것이 한계점이라 지적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인터뷰 방식을 사용하거나 다른 효과적인 평가 방식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양적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별 심층면접과 같은 질적 연구방안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참고문헌

권석만 (1994). 한국판 역기능적 태도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및 요인 구조. *심리과학*, 3(1), 100-111.

김광일 (1985).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서울: 탐구당.

김재엽 (2007). *한국인의 가정폭력*. 서울: 학지사.

김정문 (2010). 불안정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혜정 (2006). 통합적 집단미술치료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배성운 (1998). 가족의지지 및 가족의 기능적 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미은 (1998). *매맞는 아내들의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승철, 김만권, 윤관수, 김진학, 이명서, 문수

- 재, 이민진, 유계준(1991). 한국에서의 CES-D의 사용. *신경의학*, 30, 752-766.
- 여성가족부 (2007).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여성가족부 (2008). 200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 이금옥 (2009). 가정폭력 가해자의 심리사회적 행동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이 (2001).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한국심리학회·임상심리학회 2001년 하계학술 대회 자료집, 43-54.
- 이옥희 (2010). 남편의 심리적 폭력이 아내의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인지요인을 매개변인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윤경 (2008). 남편의 정서적 폭력과 아내의 우울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혜정 (2002). 학대경험 아내들의 결혼 불안정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9), 17-33.
- 조용래, 원호택 (1999). 사회공포증에 대한 인지적 평가: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 141-162.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IV*.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rias, I., & Pape, K. T. (1999). Contribution of psychological abuse to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relationship stability among battered women. *Violence and Victims*, 14, 55-67.
- Arias, I., Street, A. E., & Brody, G. H. (1996). Depression and alcohol abuse: Women's responses to psychological victimization.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s National Conference on Psycho social and Behavioral Factors in Women's Health: Research, Prevention, Treatment and Service Delivery in Clinical and Community Settings. Washington. DC.
- Baucom, D. H., & Epstein, N. (2002). *Enhanced Cognitive-Behaviored Therapy for Couple: A Contextual Approac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ucom, D. H., Epstein, N., Sayers, S. L., & Sher, T. G. (1989). The role of cognitions in marital relationships: definitional, methodological & conceptual issu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31-38.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Tow.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Beck, A. T. (1995). *Cognitive Therapy: Basic and Beyond*. New York: Guilford Press.
-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 Beck, A. T., Rush, A. J., Shaw, B. F., & Emery, G. C.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 Campbell, J. C., Kub, J., Belknap, R. A., & Templin, T. N. (1997). Predictors of depression in battered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3(3), 271-293.

- Chang, E. C. (1996). Cultural differences in optimism, pessimism and coping: Predictors of subsequent adjustment in asian american and cauc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1), 113-123.
- Coker, A., Smith, D. H., Bethea, L., King, M. R., & Mcowan, R. E. (2000). Physical health consequence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intimate partner violence. *Arch Fam Med, 9*, 451-457.
- Dalton, C., & Schneider, E. M. (2001). *Battered Women and Law*. New York: Foundation Press.
- Dattilio F. M. (1997). Family therapy. In R. L. Leahy, *Practicing Cognitive Therapy: A Guide to Interventions*. Northvale, NJ: Joson Aronson.
- Dattilio, F. M., & Padesky, C. A. (1990). *Cognitive Therapy with Couple*. Sarasota, F. L.: Professional Resource Exchange.
- Dienemann, J., Boyle, E., Baker, D., Resnick, W., Wiederhorn, N., & Campbell, H. (2000). Intimate partner abuse among women diagnosed with depression.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21*, 499-513.
- Dunphy, L. M. (1999). *Management Guidelines for Adult Nurse Practitioners*. Philadelphia: Davis.
- Follingstad, D. R., Rutledge, L. L., Berg, B. B., Hause, E. S., & Pol, D. S. (1990). The role of emotional abuse in physically abusive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Violence, 5*(2), 107-120.
- Hamberger, L. K., & Hasting, J. (1993). Recidivism following spouse abuse abatement counseling: Treatment program implications. *Violence and Victims, 5*, 157-170.
- Hankin, B. L., Abramson, L. Y., Miller, N., & Haeffell, G. J. (2004). Cognitive vulnerability-stress theories of depression: Examining affective specificity in the prediction of depression versus anxiety in three prospective studi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8*(3), 309-345.
- Hecker, D. A., & Gocdolf, E. W. (2005). Nonphysical abuse among batter program participant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7*(4), 293-314.
- Herman, J. (1994). *Trauma and Recovery: 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London: Pandora.
- Hillberman, E., & Munson, K. (1978). Sixty battered women. *Victimology: An Internet Journal, 2*, 465-470.
- Hillberman, E. (1980). The wife-batterer's wife reconsidered. *American Journal Physical, 137*, 1336-1347.
- Hyden, M., O'Leary, K. D., Malone, J., & Tyree, A. (1994). Verbal aggression as a prehistory of women battering.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 55-71.
- Ingram, R. E., & Wisnicki, K. S. (1988). Assessment of positive automatic cognitiv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98-902.
- Jacobson, N. S., & Margolin, G. (1979). *Marital Therapy: Strategies based on social learning and Behavior Exchange Principles*. New York: Brunner/Mazel.
- Kent, A., & Waller, G. (1998). The impact of childhood emotional family environment: An extension of the child abuse and trauma scale. *Child Abuse & Neglect, 22*(5). 393-399.

- Lawson, D. M., & Kieffer, K. M., Dawson, T. F., Perez, L. M., J., Kier, F. J. (2001). An integrated feminist cognitive-behavioral and psychodynamics group treatment model for men who abuse their partners.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2(2), 86-99.
- Lightsey, O. R. (1994). Positive automatic cognitive as moderators of the negative life event-dysphoria relationship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8, 353-365.
- Mashall, L. (1999). Effect of men's subtle and overt psychological abuse on low income women. *Violence and Victims*, 14(1), 69-87
- Macleod, A. K., & Moore, R. (2000). Positive thinking revisited: Positive cognitive, well-being and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y Psychotherapy*, 7(1), 1-10.
- Nichols, M. P., & Schwartz, R. C. (2001).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 Boston: Allyn & Bacon.
- O'Leary, K. D. (1999). Liberation from self-blame: Working with men who have experienced child abuse sexual abuse. *Dulwich Centre Journal*, 4, 24-40.
- O'Leary, K. D., Malon, J., & Tyree, A. (1994). Physical aggression in early marriage: Prerelationship and relationship effec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3), 594-602.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ackett, L. A., & Saunders, D. G. (1999). The impact of different forms of psychological abuse on battered women. *Violence and Victims*, 14(1), 105-117.
- Schwartz, R. M., & Garamoni, G. L. (1989). Cognitive balance and psychopathology: Evaluation of an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positive and negative states of mind. *Clinical Psychology Review*, 9(3), 271-294.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 283-316.
- Straus, M. A., Gelles, R. J., & Steinments, S. K. (1980).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New York: Anchor Press.
- Street, A. E., & Arias, I. (2001). Psychological abuse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battered women: Examining the roles of shame and guilt. *Violence and Victims*, 16(1), 65-78.
- Tolman, R. M., & Bhosley, G. (1991). The outcome of participation in a shelter sponsored program for men who batter. In D. D. Knudsen & J. L. Miller (Eds.), *Abuse and Battered: Social and Regal Responses to Family Violence*(pp.113-122). New York: Walker DeGruyter. Inc.
- Tolman, R. M. (1989). *PMWT: The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Women Inventory*.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 Tolman, R. M. (1999). The validation of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women inventory. *Violence and Victims*, 14, 25-38.
- Walker, L. E. (1978). *The Battered Women*. New York: Harper & Row.

Weissman, M. M., & Beck, A. T. (1978).  
Advances in psychiatric epidemiology: Rates  
and risk in major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7*, 445-451.

1 차원고접수 : 2011. 10. 11.

심사통과접수 : 2011. 12. 1.

최종원고접수 : 2011. 12. 9.

## **The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variables on psychological symptoms due to the experiences of psychological violence**

**Lee Ok Hee**

**Park Joong Kyu**

Daegu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recognize the influences of psychological violence experience by husbands on their wives' psychological symptoms and to verify the effects of cognitive variables which mediates that process. We assumed that psychological violence without physical violence could influence on psychological symptoms and wife's cognitive variables (e.g, dysfunctional attitude, positive & negative automatic thoughts) would mediate that process. To verify these hypotheses, structural equating method was administered. As the results, cognitive variables appeared to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theoretical model which was proved statistically meaningful. The most valuabl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cognitive model could be applied to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violence. Especially, negative automatic thought did crucial role in the whole process. So, even though these restricted research findings, cognitive variable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improvement of psychological difficulties of female victims. Finally,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psychological violence, mediates effects, cognitive model, psychological well-being, depression*